

미국토목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의 홈페이지 소개

황 윤 국*

1998년 Vol. 11., No. 4호로부터 지난 호(Vol. 13, No. 1)까지 "전산구조 자료실"에서는 토목, 건축, 선박, 항공에 관련된 웹사이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개해왔다. 이번 호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토목관련 학회 중 내용면이나 외형적 규모로 거의 세계 최대라 할 수 있는 미국토목학회(ASCE)의 웹사이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학회는 토목공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의 발전을 기하고, ① 토목기술자들과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선도적인 전문적 조직, ② 연구결과, 기술, 정책, 관리정보 등의 개발과 이를 전파하는 구심점, ③ 타 공학분야 및 관련 협회들과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공헌을 위한 매개역할을 수행하고자 1852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 공학회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23,000여명의 토목기술자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학회의 구성은 4개의 구역(zone), 17개 지역(district)과 지역 협의회(council), 4개의 소장회원 협의회 및 미국내에는 77개의 분과(section)와 150개의 지회(branch)가 있고, 9개의 국제분과와 226개의 학생분회(chapter), 33개의 학생클럽(club)으로 되어있다.

* 본학회 편집위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또한 ASCE내에 "구조공학연구소(1996)", "건축 공학연구소(1998)", "토질연구소(1996)", "환경과 수자원연구소(1999)"와 같은 4개의 연구소를 만들어 토목공학의 특별한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ASCE는 많은 전문적 활동, 교육활동, 기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200여명의 토목기술자들이 약 600개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방서와 규준을 만들고 있으며 1999년에만 50,000여 쪽의 인쇄물이 나올 정도로 토목공학 정보에 관련해서는 세계 최대의 출판사이다. 출판물을 살펴보면, 월간잡지 "Civil Engineering", 월간소식지 "ASCE News", 연간인 ASCE 연차행사표, 28개의 기술 및 전문논문집(인쇄물, CD, 인터넷상에서 받을 수 있음)과 다양한 책자, 학술발표 논문집, 위원회 보고서, 실무편람, 각종 기준과 전공논문 등이 있다. 또한 ASCE 출판물의 총목록 뿐만 아니라 토목기술자가 참조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자료를 포함하는 토목공학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웹사이트인 "www.pubs.asce.org"에서 이를 검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ASCE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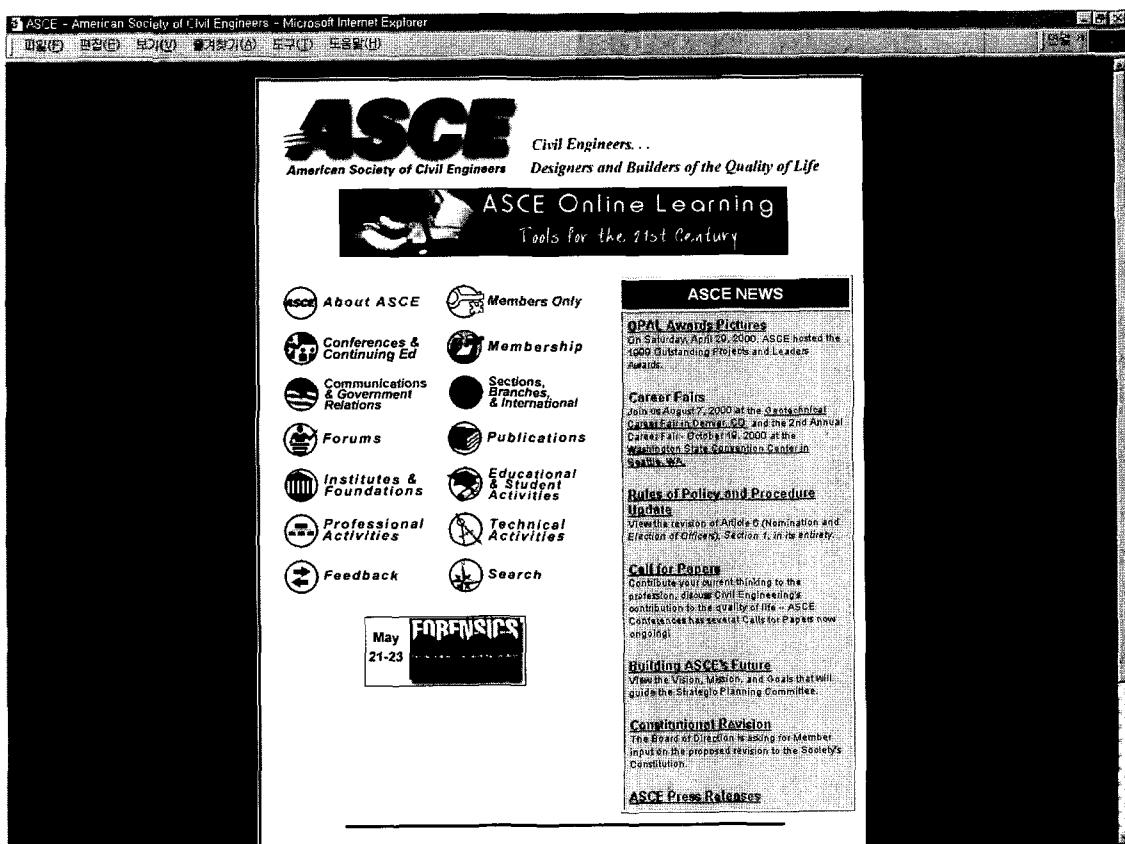


그림 1 미국토목학회(ASCE) 홈페이지의 일부화면

웹사이트 주소는 www.asce.org이고 초기화면의 일부는 그림 1과 같다. 본 사이트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면관계상 초기화면의 각 항목에 대해서 제공되어지는 정보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각 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초기화면의 중간부 우측에 활성화된 창으로서 "ASCE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ASCE에 관련된 각종 행사소식들이 제공되어지고 있다.

1. ASCE에 관하여

전술한 "ASCE 소식"보다 자세한 소식과 각종 행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회원의 행동강령과 ASCE의 구체적인 소개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각종 학회와 협회와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link)" 항

목도 있다.

2. 회원전용방

ASCE의 회원들에게만 개방된 항목으로서 회원간 담소, 상업적 목적의 사업 등과 같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3. 학술발표회 및 교육프로그램

매년 미국과 전세계에서 ASCE가 주최하는 각종 학술발표회 및 특별한 분야의 학술발표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00년과 2001년의 학술발표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장소,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면 각종 프로그램을 신청조건에 맞

도록 개별적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더불어 최근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국내 토목기술자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준비하고 있는 미국 기술사시험인 PE시험의 준비를 위한 좋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를 준비하는 국내 토목기술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이 항목에서는 토목기술자로 하여금 직면한 문제의 해답을 찾거나 제대로 된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위해 널리 인정된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 분류, 제공하고 있다. 즉, 강의 제목, 강사, 강의내용, 장소와 일시, 수강금액 등과 같은 정보를 일목에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online) 강의를 통해 기술자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이며, 최적의 시간에 편하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였다.

4. 회원

회원 자격, 가입, 회원정보 갱신 등과 같은 회원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의 모든 토목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교류와 정부관계

각종 토목기술과 관련된 연방정부 및 각 주(State)의 정책 및 관련 소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의 교류와 관련 관공서나 백악관, 의회 등과 같은 기관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항목이다. 여기서, 공학회인 ASCE가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 국내의 전문기술 학회들은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6. 분과, 지회, 국제분과

서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ASCE는 자국내 많은 분과,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150여

개국에 7,800여명의 회원이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ASCE내에 GSD(Geographic Services Department)가 있으며, 이 항목에서는 이러한 많은 분과, 지회 및 국제분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 공청회

이 항목은 몇 가지 의제에 대한 발의를 바탕으로 공개 공청회를 인터넷상에서 개최하여 발의된 의제에 대해 토론의장을 제공하고 있다.

8. 출판물

다수의 토목기술자들이 업무 및 연구 수행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항목이 바로 이 항목으로서 초기화면은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요정보로서 토목공학의 D/B, 논문, 책자, 분류된 광고를 제공하고, 부가적으로 ASCE 소식지, ASCE 출판사, 토목공학 잡지 등과 같은 항목과 연결하여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연구소 및 재단

ASCE 연구소는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4개의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섯 번째 연구소인 "시공과 재료연구소"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활동중에 있다. 각 연구소의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Geo-Institute(G-I)
- ②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SEI)
- ③ Architectural Engineering Institute(AEI)
- ④ Envir. & Water Resource Institute(EWRI)
- ⑤ Construction and Material Institute

또한 ASCE 재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제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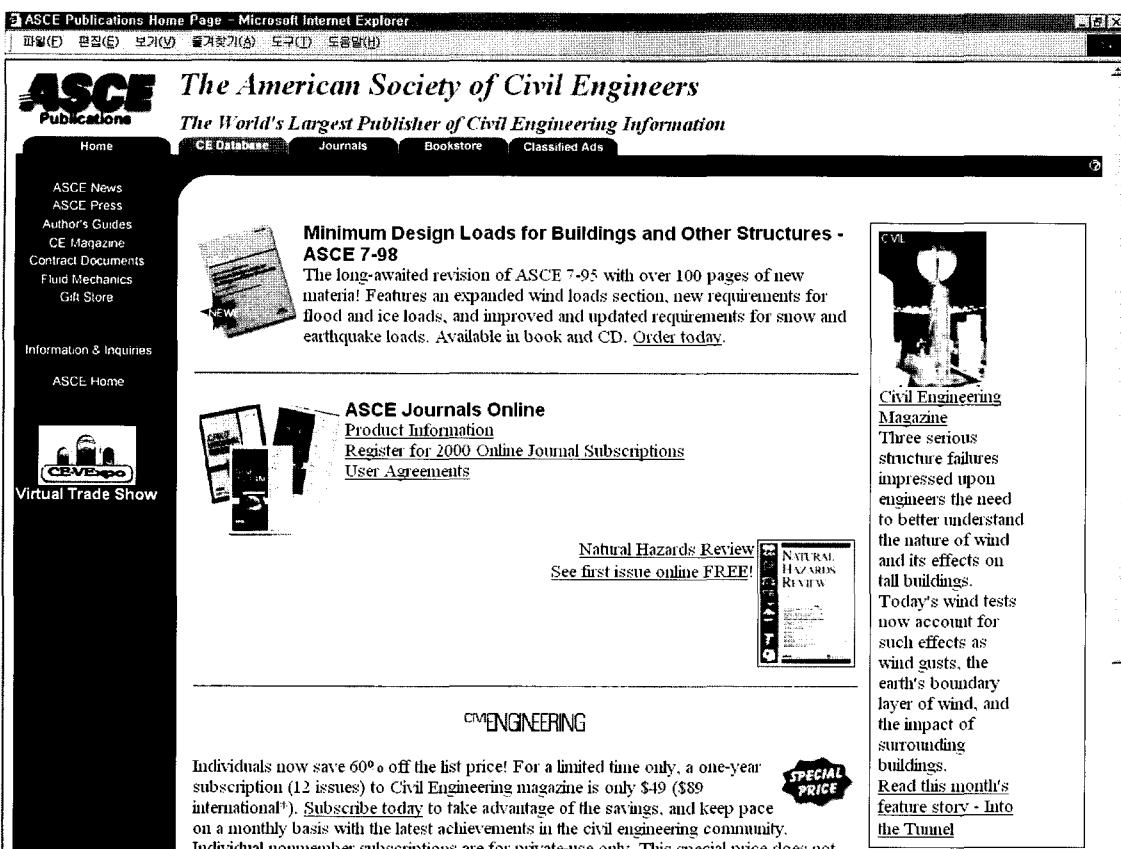


그림 2 출판물 항목의 초기화면 일부

10. 교육 및 학생활동

이 항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활동과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1. 전문적인 활동

각종 전문적인 위원회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2. 기술활동

기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5,000여명이며, 14개의 학술발표회와 웍크샵을 수행하고 10개의 논문과 575개의 기사를 발간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항목이외에도 각종 건의사항을 물을 수 있는 "feedback" 항목과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본 사이트에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이트 검색" 항목이 있다.